

우리학교는 오는 17일부터 세계평화의 해 1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21세기의 지구공동체'를 위한 평화전략과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신라호텔에서 국제평화회의를 주최한다.

이 자리에는 유엔의 조셉 버너 리드 사무차장을 비롯한 구상열 유엔장관, 50주년 기념위원회 국장, 부르스 러셀 예일대학교 유엔 연구소장 등이 참석하며 국내외 26명의 학자들이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신문은 이번 행사에 맞춰 국제평화회의의 각분과별 연설재료를 토론회 명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세계평화의 해 10주년 국제평화회의

21세기 평화전략과 유엔의 역할

주제: 인류공동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의 지도적 역할(17일 오후 2시-5시30분, 장소: 신라호텔 토파즈 룸)

사회자: 이한빈 박사 (우리 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한국)

발표자: △세운 브라운 박사 (브랜디스대학교 국제협력문제 석좌교수, 미국)-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의 강화: 강대국의 역할 △도널드 푸랄라 박사 (사우드케틀라리아(콜롬비아)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유엔과 인류공동의 신화 △임용순 박사(성균관 대학교 교수, 한국)-지구 공동사회 건설에 있어서 강대국의 지도적 역할: 특히 동북아공동체에 관련하여

주제: 유엔 '세계평화의 해'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18일 오전 9시-12시, 장소: 신라호텔 에머랄드 룸)

사회자: 도널드 푸랄라 박사

발표자: △보단 레반도우스키 박사(전 유엔사무차장, 폴란드)-유엔 '세계평화의 해' 역할과 그 미래과제 △슈프로트 오스트로프스키 박사(전 국제평화의 해 담당 실무보좌관, 폴란드)-국제평화의 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그리고 제 효과 △수라 니드 프라사드(세계평화교육자 국제협회 회장, 인도)-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육 △페드로 베르날레스 박사(우리 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유엔 '세계평화의 해' 역할과 과제: 21세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평화의 구축

주제: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주의 국가들의 나아갈 길(18일 오전9시-12시 장소: 신라호텔 토파즈 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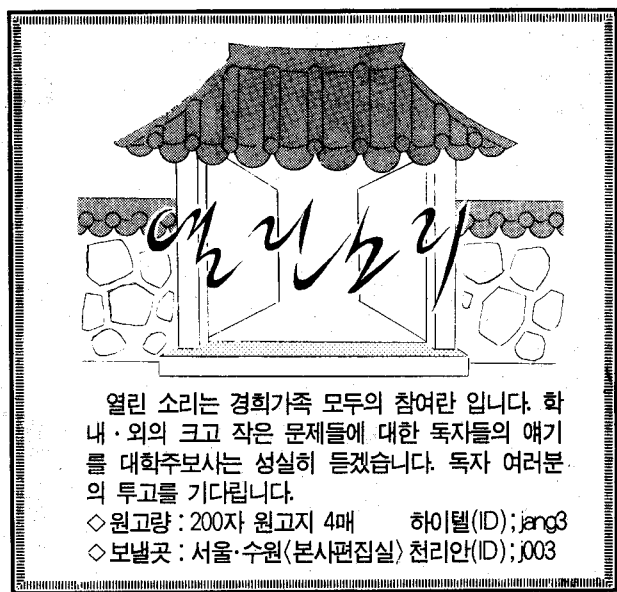
사회자: 부르스 러셀 박사

발표자: △크리스토퍼 블루스 박사(레딩대학교 유럽 및 국제관계대학원장, 영국)-지역 강국들과 국제체제의 미래: 독일 △바바라 리베츠카(교수, 폴란드)-세계화와 지역의 도전: 중부유럽의 사례 △제운상 박사(동경국제대학교 교수, 일본)-아시아-태평양에 있어서의 지역통합: 성과와 전망 △박종철 박사(우리 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화의 전망

주제: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신윤리 규범(18일 오후 1시-4시, 장소: 신라호텔 에머랄드 룸)

사회자: 한표옥 박사(우리 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한국)

발표자: △요시아키 이이사와 박사(세이가쿠인대학교 정치 및 정책대학원 원장, 일본)-후기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윤리규범 △이원섭 박사(세계대학총장회 동북아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신윤리 규범 △권기현 박사(우리 학교 교수, 한국)-무도덕사회로부터 인간적인 사회로: 과학, 가치 그리고 공공정책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화 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에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jang3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지실) 천리안(ID): j003

제7분과

학내에서도 활성화되길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이 범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는 요즘 우리학교에서도만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50만평의 대지를 자랑하는 서원관에서 도로보러 각 단대를 찾아 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곤욕이 아닐 수 없다. 정문에서부터 자연과학대까지 도로로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학내 셔틀버스는 둘째치고라도 학내에 주차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자가용 통학자가 많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 달리는 곤욕(?)을 치러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본 즉, 학내로 들어오는 자가 운전자들이 애초부터 학생들의 도움 요청도 무시한채 자신만의 오토 드라이브를 즐기려 한다. 학내를 혼자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경회인으로서 경회 두박이들이 애처롭지 않은지.

경회 자가운전자 여러분! 애초부터 경회 두박이를 보거든 학내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합시다.

이 인 군
(자연대 물리 1)

도서관 이용 불편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

우리학교는 각 학생들의 등록금 중 약 2만원을 한달 서적 구입비로 쓰고 있다는 말을 들

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한달에 8천원 이상의 책이 도서관에 구비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왜 그리도 많은 것인가?

나같은 경우 강의교재나 전공서적이 아닌 교양도서와 베스트 셀러 소설류는 거의 한번 밖에 읽지 않기 때문에 그리 쉽게 구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2학기 들어 두번씩이나 화면이 얼라비치 되어 있다는 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과연 그 책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인지, 도서관에 책이 많이 구비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대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측은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권 지 상 (국문1)

고 침

지난 9일 우리신문 제1100호 공개 홈페이지 기사 중 홈페이지 주소는 <http://eng.kyunghee.ac.kr>과 <http://163.180.102.31>로,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식당 식비인상 기사중 인상일을 16일부터로, 공대주차금지 기사 중 금지구역은 공대앞으로, 한치근 교수는 전산과로 고침니다.

제1분과

주제: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사회상(17일 오후 2시-5시30분, 장소: 신라호텔 루비룸)

사회자: 김홍기 박사(국제한인 변호사회 공동회장, 미국)

발표자: △부르스 러셀 박사(예일대학교 유엔연구소장, 미국)-평화공동체: 민주주의, 상호의존 그리고 국제기구 △아담 셔부르스키 박사(뉴욕대학교 정치학 교수, 미국)-민주주의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인가? △순재식 박사(우리 학교 평화복지대학원, 한국)-21세기와 지역민주주의

제3분과

주제: 21세기의 바람직한 Pax UN의 위상과 역할(17일 오후 2시-5시30분, 장소: 신라호텔 에머랄드 룸)

사회자: 최운상 박사 (동경국제대학교 교수, 일본)

발표자: △루이스 쏜 박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 미국)-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외 분쟁의 방지, 완화 및 종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

제4분과

주제: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주의 국가들의 나아갈 길(18일 오전9시-12시 장소: 신라호텔 토파즈 룸)

사회자: 부르스 러셀 박사

발표자: △크리스토퍼 블루스 박사(레딩대학교 유럽 및 국제관계대학원장, 영국)-지역 강국들과 국제체제의 미래: 독일 △바바라 리베츠카(교수, 폴란드)-세계화와 지역의 도전: 중부유럽의 사례 △제운상 박사(동경국제대학교 교수, 일본)-아시아-태평양에 있어서의 지역통합: 성과와 전망 △박종철 박사(우리 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화의 전망

제6분과

주제: 오늘의 종족 및 지역 국가간의 분쟁의 원인과 대응 방안(18일 오후 1시-4시, 장소: 신라호텔 토파즈 룸)

사회자: 신정현 박사(경희대학교 정책대학장, 한국정치학회장, 한국)

발표자: △롤란드 데 라 로자 박사(산토 토마스 대학교 총장, 필리핀)-혈통의 순수성

국제 평화회의
일시: 9월17~19일
장소: 서울신라호텔

제2분과

내가 처음으로 경찰을 접한 때는 국민학교 5학년때였다.

친구네 동네에서 장난을 치며 놀다가 어떤 집 대문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웬 경찰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인터뷰 도둑으로 몰아댔다.

드라이버는 어디있느냐, 일단 파출소로 가져와 내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것이었다. 어린 마음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버텼고 그러기를 한시간이 넘었을까? 아는 아주머니가 그 경찰에게 마구 따지자 슬그머니 나를 놓아주고는 가버렸다.

아마 내가 일가친척이 없는 고아였거나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못된 놈으로 찍혔더라면 영락없이 전과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랐었는지...

처음으로 경찰의 검문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때였다. 그때 10

朔風

태먹지 못한 헛바닥(?)

년도 넘은 아버지의 돼지가죽 점퍼를 입고 다녔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애꿎은 내 가방을 마구 뒤지는 것이었다.

18세의 나이에 내가 그렇게 '범죄형'으로 생겼는지 고민하느라 푸른날의 내 이마에는 주름살이 하나 더 늘었다.

물론 그건 10년도 더 된 얘기이고 개인적인, 그리고 30년을 살면서 겨우 두번밖에 겪지 않은 일로 경찰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전 한총련 간부들을 검거하려던 일련의 경찰들이 애꿎은 상인을 구타하고 풀어준 사건이 있었다. 또 폭주족을 단속한다고 나와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공포탄을 쏜 일도 있었고, 실탄을 시민에게 난사한 '람보'형 경찰도 있었다.

이쯤되면 경찰청장은 어떤 지시

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야 했을까? '자숙?', '총기안전확립?' 불행히도 위대한 문명정부의 복어집 출신 경찰청장은 "공권력에 도전할 때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그에 따른 뒷일은 불문에 붙이겠다"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일선경찰서로 보냈다는 보도를 접한 일이 있다.

바로 13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총련학생들이 집회를 갖자 헬기로 최루액을 4~5차례 뿌리기도 했단다. 학교측에 협조를 구하고 뿌린 것인지 의문이 가지만 친절한(?) 대한민국의 돈많은 신문사에서 그런 내용은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왜 말로, 글로만 들던 80년이 생 각나는 것일까?

또 정치군인과 정치경찰중 어느 것이 더 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끼칠까?

물론 정치군인들이 그러했듯이 정치경찰도, 무식한 경찰도, 이근간이 같이 못먹은 경찰도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찰들은 적은 월급에 많은 근무시간에 시달리며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왜먹지 않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 그 조직의 상부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것이다. 그 상부에서 손가락 하나로 그 못된 헛바닥으로 온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대통령이 대학신문을 검열하느라 이글을 읽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욕먹는 것은 제발 그만 두라고.

(落)

“경희 DOG 3년이면 대출도 한다”

—장애인 학생 최대한(정의 2)군

인터뷰



“응대와 함께 다니 이후로 생활하기가 많이 편해졌어요.”

한 달 전부터 '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맹인안내견 응대를 쓰다듬으며 최대한(정의 2)군은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지난 주, 중앙 대자보판에는 응대에 관한 이색적인 대자보가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잘 생긴 개 '응대'를 보셨습니까?”라는 제목의 이 대자보는 응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믿게끔 하여 자신의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래 쓰다듬는다거나 먹이를 준다거나 하는 행동은 삼가해달라는 최근의 당부가 쓰여 있다.

최군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응대를 기증받았으며, 최군과 응대는 4주동안 함께 교육을 받고 이제는 어디든지

함께 다니며 강의까지 함께 들게됐다. 주위 학우들은 응대를 보고 '경희 DOG 3년이면 대출도 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건네기도 한다.

같은 공부라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군은 학교생활 이외의 시간도 거의 공부를 하며 보낸다. 또한 중학교때 시작하여 이제는 수준급인 기타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라

고.

최군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한다. 누가 해주기만을 바라지 않고, 장애인 스스로 힘을 모아 자신들의 권익을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최군의 생각.

우리 학교가 97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시행을 폐지하도록 결정내린 것에 대하여 최군은, “단기적으로 복지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장애인에 위한 처사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교육받은 장애인이 드문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는 최군은 장애인이 정신마저 도태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유리 기자)

세 조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동양산업기계 동양도립

식 품

동양제과
오리온프리드레이

공 의

서남재단

금 융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동양투자신탁
동양카드
동양알부금융
동양창업투자
동양투자자문
동양신설
동양파이낸스

무 역 · 유 통 · 건 설

동양글로벌
동양에운
동양마트
동양시멘트/건설

정보통신

동양SHL
오리온카운터트윅

국가기간산업에서 금융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21세기를 향한 힘찬질주

국가기간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온 동양그룹이 식품, 금융, 유통서비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해 온 동양그룹 - 이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와 앞선 세계화의 실현을 통해 21세기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동양그룹